

# 남원시장, 청년들과 소통 나서 순창군, 2023 송년음악회 개최

## 춘향제·드론제전 등 발전 방향·개선 사항 모색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3일, 동충동의 청년마루에서 지역 청년 30여명과 열린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남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화는 남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담아 정책에 반영해 보고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3일, 동충동의 청년마루에서 지역 청년 30여명과 열린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자 마련된 것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대화의 주제는 다양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에 대한 진행 상황부터, 남원의 대표 축제라 할 수 있는 춘향제 및 드론제전 등에 대한 발전 방향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됐다.

남원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대화를 마친 후 "너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했다"며, "이번 대화가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적·토지정보 업무 최우수기관 표창

남원시가 전라북도 주관 2023년도 지적·토지정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적·토지 행정업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0개 항목의 업무추진 실적, 각종 지적 측량관리, 부동산공시지가 산정, 디지털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추진,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다양한 민원 요구 처리사항, 우

수·수범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남원시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5개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면서 지적·토지정보 분야의 업무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최근 남원시는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온택트 성과검사 추진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관리 △시민

편의의 지적재조사 추진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설물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 등 전문성을 갖고 활발히 지적·토지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권해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드림스타트, 한옥마을 전통 체험 실시

임실군이 지난 9일 전주 한옥마을과 스케이트장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7명

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전문문화와 스포츠로 미래를 열다' 체험활동 프



로그램을 추진, 예절교육도 받고 스케이트도 타는 신나는 하루를 선사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직접 입고 전통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전통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기회를 가져 우리 고유 문화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겨울철 스포츠인 스케이트장을 방문, 친구들과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며 흥분, 땀에 젖기도 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유대감과 공감대 형성을 도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체험활동에 참석한 정 OO 아동은 "전통 예절을 배울 때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생활 속 예절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국악·트로트·포크송 등 다채... 관람료 무료 선착순

순창군이 오는 20일 저녁 6시 30분에 향토회관에서 올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새해의 인연을 기원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개그맨 뽀석이 이음식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송년음악회는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보고, 2024년의 새로운 희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통기타 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악예술단의 국악공연, 트로트가요,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트롯 전국제전에서 우승한 국악인 출신 가수 신승태의 공연과 상지 출신 국악 가수 정호영 씨가 활동하고 있는 국악예술단, 대한민국 대표 포크 록 밴드 여행스케치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입장은 오는 20일 저녁 6시부터 선착순 400명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12월에 군민들의 바쁜 몸



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며 "글썩이의 아티스트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꾸미는 2023년 송년음악회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예술과(063-650-1625)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202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서 '우수'

남원시가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 기관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이번 실태평가는 공공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으며, 남원시는 극비 확보를 통한 농어촌 하수도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평가점수를 향상시켜 발전상을 수상했다.

황도연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시, 경로당 어르신 사고예방 교통안전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겨울철 노인 교통사고 중 인명피해가 큰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임실을 정월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벌였다. 특히, 새벽시간대 차량이 없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길 건너기 전에 좌, 우를 살펴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것을 더불어 방어보행 삼원칙(서다-보다-걸다)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어르신 교통안전 수칙 스티커가 부착된 한방파스를 현장에서 배부했다. 최규은 서장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읍에서 전문건설회사 ㈜태성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운섭 대표의 부친 박인석 씨가 14일 고향사랑기부 최고액 기탁했다.

## 순창군 태성건설,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 박운섭 대표 부친 박인석씨

순창군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각계각층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창읍에서 전문건설회사 ㈜태성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운섭 대표의 부친 박인석 씨가 14일 고향사랑기부 최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태성건설 박운섭 대표는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 2002년 한성토건에 입사하여 순창에 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경험을 쌓아 2016년 12월 태성건설 설립 후 지역 내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및 소화전 등 각종 시설물 정비 공사에 힘쓰고 있다. 박인석 씨는 "순창 출신은 아니지만 아들이 20년 이상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순창군민이다"며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순창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순창군이 고향이 아님에도 고향처럼 사랑하고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